

영건들 성장·베테랑 긴장...KIA 내야 미래가 밝다



KIA 내야수 박민이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출장에 나선 지난 18일 LG전에서 프로 첫 3안타와 좋은 수비를 선보이면서 내야 경쟁에 불을 붙였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박찬호 리그 대표 유격수 자리매김...김도영 '새 역사' 진행형 김선빈 빠진 자리 홍종표 등 경쟁...박민 프로 첫 3안타·호수비



KIA 타이거즈의 내야가 경험과 경쟁으로 더 탄탄해진다. '내야'는 KIA의 오랜 고민 지점이었다. 매년 마운드에서는 굵직한 '타이거즈' 선수들이 탄생했지만 내야는 선수들의 더딘 성장세 속 외부 영입으로 전력을 채우고 있다. 올 시즌 KIA는 타이거즈 왕조 구축의 숙제였던 내야의 전력 강화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뤄가고 있다. 타격에 눈을 뜬 박찬호가 팀은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내야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확실한 자리가 생긴 김도영은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여기에 KIA는 올 시즌 'MVP' 출신 서건창을 영입해 경험도 더했다. 우려의 시선 속에 타이거즈맨으로 새출발을 한 서건창은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그라운드 안팎에서 KIA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도 큰 전력이다. 양현종은 3·0으로 앞선 3회 2사에서 문성주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연속 안타로 2실점을 했고, 4회에도 선두타자 박동원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박해민과 신민재에게 연속안타를 맞아 실점을 했다. 이날 5회까지 소화한 양현종은 7개의 안타와 2개의 볼넷도 허용하는 등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공·수에서 이어진 야수진의 도움과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하지만 양현종은 경기 도중 팔꿈치 저림 증상을 보여 우려를 샀다. 병원 검진 결과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민한 팔꿈치 부위이고, 최근 등판에서도 골반 쪽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던 만큼 이범호 감독은 양현종의 휴식을 결정했다.

이 되자 이번에는 홍종표가 등장했다. 홍종표는 공수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내야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이어 김선빈의 열구리 부상이라는 악재가 발생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됐다. 김선빈이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다시 박민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12일 박민이 다시 1군에 콜업되면서 2020년 입단 동기 홍종표와 박민의 선의의 경쟁이 시작됐다. 18일에는 박민이 9번 타자 겸 2루수로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출장에 나서, 어필 무대에 나섰다. 2회 첫 타석에서 내야안타를 기록한 박민은 3회에는 1타점 2루타를 날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날 KIA가 11점을 뽑아내자, 이범호 감독은 마지막까지 박민에게 역할을 맡겼다. 박민은 이날 5타석을 소화했고,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추가하면서 프로 첫 3안타 경기를 펼쳤다. 박민은 1·2회에 유격수 박찬호와 더블플레이를 합작하면서 선발 양현종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8회에는 까다로운 불규칙 바운드 땅볼도 처리하면서 자신의 수비 강점을 확실히 보여줬다. 11·4에서 KIA의 마지막 수비가 시작됐고, KIA 팬들은 내야의 미래인 홍종표, 박민, 김도영이 아니라 그라운드를 지키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박찬호가 벤치로 물러나면서 박민이 유격수로 이

동했고, 홍종표가 2루수로 투입되면서 3루수 김도영과 함께 내야 영건들이 처음 한 자리에서 경기를 펼쳤다. 이범호 감독은 "쉬고 있는 (김)선빈이도 긴장할 것 같다.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도 간절함 모습 보여 주고 있다. (서)건창이도 간절함이 보인다. 서로 경쟁에서 안 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며 "박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간절함을 느꼈다. 젊은 선수들이 1군에서 성적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기회 줄 수 있으면 찾아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민은 최상위권 수비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수비에서 화려함보다는 정확성을 가진 선수다. 무리하지 않는다. 우리팀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홍)종표가 화려한 느낌의 선수라고 하면 박민은 정확하게 아웃시키려는 선수에 가깝다"며 "방망이도 좋은 능력 가지고 프로에 왔지만 신인 때 퓨처스에서 얼굴에 공을 맞고 난 뒤 좋았던 부분을 살리지 못했던 것 같다. 군대도 해결했고, 자기 야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 공수에서 충분히 능력을 가진 선수다"고 평가했다. 내야 경쟁의 한 축으로 떠오른 박민은 "즐거웠다"는 각오다. 박민은 "경쟁이라는 생각은 딱히 안 한다. 야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최대한 즐기려고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즐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전드 맞대결' 보다 '대투수 휴식'

KIA 양현종 엔트리 말소...한화 류현진과 대결 불발

KIA 타이거즈의 '대투수' 양현종(사진)이 대권 도전을 위해 잠시 쉬어간다. 눈길 끌었던 한화 이글스 류현진과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KIA는 19일 LG 트윈스와 8차전에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좌완 양현종이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우완 김승현이 등록됐다. 양현종은 전날 LG전 선발로 출격했다. 양현종은 3·0으로 앞선 3회 2사에서 문성주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연속 안타로 2실점을 했고, 4회에도 선두타자 박동원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박해민과 신민재에게 연속안타를 맞아 실점을 했다. 이날 5회까지 소화한 양현종은 7개의 안타와 2개의 볼넷도 허용하는 등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공·수에서 이어진 야수진의 도움과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하지만 양현종은 경기 도중 팔꿈치 저림 증상을 보여 우려를 샀다. 병원 검진 결과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민한 팔꿈치 부위이고, 최근 등판에서도 골반 쪽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던 만큼 이범호 감독은 양현종의 휴식을 결정했다.

양현종은 올 시즌 16경기에 나와 91.2이닝을 소화하면서 3.83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솔직히 너무 많이 던졌다. 언제 휴식을 줄지 생각하고 있었다. 로테이션상 마지막 던지고 나면 4일 뒤 올스타브레이크라서 지금 쉬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본인은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투수 코치, 트레이닝 파트너 미팅했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경기도 중요하지만 팀은 양현종이라는 선수가 필요하다. 골반이 안 좋았을 때도 한 번 빼려고 했는데 본인이 던지겠다고 해서 들어왔다. 지금은 팔이고, 90이닝을 넘겼기 때문에 고집을 꺾을 때라고 생각했다"고 양현종의 엔트리 말소를 설명했다. KIA는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1경기도 중요하지만 '우승'이라는 팀의 목표를 위해 또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KIA는 멀리 보고 양현종의 말소를 결정했다. 양현종이 10일의 휴식에 들어가면서 기대를 모았던 류현진과의 '레전드' 맞대결은 다음을 기약하



게 됐다. KIA는 21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로테이션상 23일 양현종과 류현진의 대진이 성사됐지만, 숨가쁘게 달려왔던 양현종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KIA는 이날 양현종을 대신해 임기영을 선발로 투입해 '괴물 사냥'에 나서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콘세이상 극장골...포르투갈, 체코에 대역전승

유로 조별리그 1차전 2-1로 이겨 호날두 유로 6차례 출전 '대기록'

'주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 6차례 출전의 대기록을 세운 날, 포르투갈은 '난적' 체코에 대역전승을 거뒀다. '유로 2016' 우승 이후 8년 만에 챔피언 복귀를 노리는 포르투갈은 19일 독일 라이프치히의 라이프치히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코와의 유로 2024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이 터져 2-1 진땀승을 거뒀다. 이날 포르투갈의 주장 호날두와 중앙 수비수 페페(포르투)는 선발로 출전에 각각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39세 134일인 호날두는 유로 대회 '역대 최고령

주장' 과 더불어 '역대 최다 출전(6회)' 기록을 작성했다. 41세 113일의 페페는 유로 대회 '역대 최고령 출전'의 기쁨을 맞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포르투갈은 체코(36위)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결과물을 얻지 못한 채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오히려 골 맛은 체코가 먼저 봤다. 체코는 후반 17분 체코의 루카시 프로보드(프라하)의 기막힌 중거리포로 포르투갈의 골문을 열었다. 반격에 나선 포르투갈은 7분 뒤 누누 멘데스(파리 생제르맹)가 골 지역 왼쪽에서 헤더로 떨어뜨린 볼을 체코 골키퍼가 쳐낸 게 앞에 있던 수비수의 발에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힘겹게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포르투갈은 후반 41분 호날두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자 디오조 조타(리버풀)가 다시 헤더로 득점을 따냈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호날두

의 오프사이드가 먼저 잡혀 득점이 취소됐다. 급해진 포르투갈은 후반 추가시간 페드루 네투의 왼쪽 결승골이 돼 기쁨이 두배가 됐다. 포르투갈은 후반 추가시간 페드루 네투의 왼쪽 크로스가 수비수 맞고 흐르자 골 지역 왼쪽에 있던 콘세이상이 왼발 슈팅으로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콘세이상은 그라운드를 밟은 지 111초 만에 자신의 A매치(3경기) 데뷔골을 작성했고, 이는 역전 결승골이 돼 기쁨이 두배가 됐다. 또 다른 F조 경기에서는 튀르키예가 조지와와 무려 36개의 슈팅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3-1로 이기고 대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양 팀을 통틀어 36개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는 지금까지 치러진 이번 대회 조별리그 '한 경기 최다 슈팅' 기록이다. 역대 유로 대회 '한 경기 최다 슈팅 기록'은 유로 2020에서 튀르키예와 스위스의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나온 42개다. 당시 튀르키예가 19개, 스위스가 23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튀르키예가 1-3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화순중, 제71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 '준우승'

화순중학교 야구부가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화순중 선수단은 19일 경주배이스볼 파크에서 펼쳐진 제71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대구 경운중에 1-6으로 패하며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6일 치러진 8강전에서 아산 온양중에 상대로 9-8, 1점 차로 이긴 화순중은 18일 준결승에서 성남중에 7-4로 꺾었다. 이번 대회에서 최재원(3학년)이 감독상, 김동현(3학년)이 미기상을 수상했다. 이기주 화순중 감독은 "대회 기간 객지에 오래

나기 있어 학생들도 많이 지친 상태인데 힘내줘서 고맙게 따랐다. 오는 8월 황성에서 열리는 백호기 전국중학야구대회를 다음 목표로 열심히 달릴 예정"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양심 교장과 세 분의 코치를 덕에 야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34개 팀 47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경주와 포항에서 진행됐다. 예선을 통과한 12개팀이 결선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을 다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